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9월 창간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830호

ihonam@naver.com

2019년 12월 9일 (음력 11월 13일) 월요일

與 '텃밭 호남' 지방의원 일탈 도 넘어

보좌관 급여 착복 · 허위출장 · 동료간 폭행 등 각종 구설수

"민주당 계속 믿고 가야하나" 비판 목소리…총선 악영향 우려

보좌관 급여 착복, 허위 출장, 동료간 폭행, 허위 연수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주 · 전남 지방의원들이 '텃밭'에서 잇따라 일탈행위를 벌이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이 각종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인 나현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급여 중 80만원을 매달 되돌려 받아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등 '인건비 착복' 의혹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면서 A씨의 급여 240만원에서 80만원을 되돌려 받아 지난 10월까지 880만원을 공동경비로 썼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지만 비난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거짓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됐다.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은 지난 9월2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청사 신축 전 경남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아 통영을 방문했으나,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관광지만 다녀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월6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위원장에게 당직자격정지 3개월, 동행한 북구의원 2명에게는 각각 서면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광주 북구의회는 고 의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의논 중이다.

광주 서구의회의 경우 시당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호주를 다녀오는 등의 일로 인해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외연수가 취소되기도 했고, 의원 1명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전남 지방의원들도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욕설 난투극, 황제 예방접종 의혹 등 일탈행위로 인해 전남도당이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최근 내년도 사립어린이집 예산안을 2배 이상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도의원이 예산심의 · 의결 절차에 참여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의원 또한 민주당 소속이다.

논란이 일자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곡성군의회에서는 정례회기 중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황제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주체제 속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을 계속 믿고 가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한 지방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강한 처벌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로 그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며 "엄한 처벌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석을 독점하면서 의원들 간에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힘을 모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이 계속 불거지다 보면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계속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송가인이 잎새주 모델 됐어라~"

보해양조, 송가인 프로젝트 성사…"철학 잘 어울려"

보해양주는 가수 송가인씨를 잎새주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잎새주'와 '보해복분자주'를 만드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해양조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 송가인씨가 잎새주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랜 준비 끝에 '송가인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특히 보해양조는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오랜 무명생활을 딛고 국민가수 반열에 오른 송가인 씨가 지난 69년 동안 좋은 술을 위한 한 길만 추구해온 보해양조의 철학과 가장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보해양조는 송가인씨와 함께 하는 첫 행사로 진도 고향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잔치를 기획 중이다. 보해양조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진도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양조는 마을 잔치 행사에 송가인씨가 참여하는 만큼, 대규모 지역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보해가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잎새주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조금씩 향상 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다음해(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보해양조가 재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송가인 씨가 잎새주 모델로 합류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창업자인 故 임광행 회장이 설립한 69년 전통의 주류전문회사다. 보해양조는 '착한 술' ·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을 철학(원칙)을 삼고 있다.

보성녹차산업특구, 국무총리 표창 수상

보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19년 지역특구 시상식'에서 '보성녹차산업특구'가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역특구로 선정되며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5000만원을 수상했다.

2007년 9월 '보성녹차 산업특구'로 지정된 보성군은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개발, 차 문화 축제 개최 등 차산업과 차문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보성차 계단식 전통차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보성다향대축제'는 문체부 선정 역대 최단기 '최우수축제'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연간 20여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보성차 축제를 방문해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뤘다.

아울러 동원 F&B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차 관련 음료를 개발 · 출시하고,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멕시코 노스게이트 트레이딩과 60만 달러 수출 협약을 맺는 등 미주 ·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수출 판로 개척에도 힘썼다.

보성=안구일 기자